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연약한 인간

성경말씀: 히2:14-18

지난 몇 주 동안 우한 폐렴의 공포 전 세계 엄습, 며칠 전 중국 확진자가 갑자기 9배 이상 늘어남(약 7만 명 확진자, 사망자 1500명), 일본 어떤 경위로 병이 퍼지는지 모른다. 요코하마 항 정박 중 크루즈 선에 3600명, 확진자 247명 오도가도 못한다. 중국 우한의 의사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꼼짝 못하고 진료하고 있다. 화장터의 직원들 하루에 1000구 이상 화장, 너무 무섭다. 지옥이 따로 없다.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사실 나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혹시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성경은 끝내고 죽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공포를 갖고 있다. 며칠 전 뉴스, 2019년 5월 30일, 교계 원로 김동호 목사 “죽음 무섭지만, 도망 다니지 않고 돌파할 것”, 김동호 목사 윤리 실천 강조, 좌편향 많은 문제, 보수 시민들, 애국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 그러나 이분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은 옳지 않다. 확실한 것: 중복 좌파는 아니다. 사회주의자 아니다.

알려진 대로 폐암 수술, 폐암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분의 과거 행적 모든 것 뒤로 하고 오늘은 인간으로서의 고백을 소개하려 한다.

김동호 목사는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피하고 미루었던 이야기가 있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문제’입니다”라며 “암 친구 한 분의 댓글이 깊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오늘 목사님 글은 심장이 내려앉네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딱 막힙니다. 암이 축복이라는 말도 수궁이 안 되고요. 예수님 처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암은 우리 인간에게 십자가와 같다. 고통과 죽음, 당연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온다. 나오는 게 정상이다. 나도 날마다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안다. 피할 수 없다면 돌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던가”라며 “돌파하려면 이해해야 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해해야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해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약하게 보이는 글이지만 나는 심정적으로 동조한다. 결코 이분을 나약하다고 하지 말라.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파이퍼 목사님 등 공개적으로 무섭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다. 내가 크루즈선에 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하기에 인간으로 느끼는 원초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 >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국가정삼담소에서 한 목사님이 10년 전에 크리스천투데이에 올린 글이다. <죽음 앞에서>

“엄마! 난 죽는 게 너무 무서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게 되는 거야!”

“난 괜히 태어난 거 같아!” “애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죽어야 되잖아! 난 죽는 거 끔찍해!” “그러면 안 죽고 너 혼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래? 엄마, 아빠도 없는데...” “나는 늙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1.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인간은 사고가 나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등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던져진 자로서 죽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죽음은 아이, 노인, 부자,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 힘없는 자, 성자, 죄인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날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만간에 죽음의 날이 찾아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삶은 곧 죽음이다.

죽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은 인간이 체험해야 될 것 가운데

마지막 것으로,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호기심과 불안을 가지고 예외 없이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죽음의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이고 가장 강력하고도 위협적이며 고통스러운 불안이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그 심리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3. 죽음의 공포 원인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부단히 연구해 왔지만 그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의 원인은 죄책감, 죽음의 신비성, 단절성, 수동적 접근성 등이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인간은 더욱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절대자)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불안을 겪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4. 불안을 느끼는 또다른 원인

죽음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없기에 이러한 미지성 또는 신비성으로 인해서 죽음은 더욱 두려운 것이다.

5. 가장 큰 원인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인간이 죽음을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라 보다 큰 세력을 지닌 타력에 의해서 단지 수동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건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원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죽기 싫은데 죽음은 점점 다가와서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소유로부터 단절하도록 인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많은 것을 배워서 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사람에게 난데없이 죽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피할 도리 없이 그가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가 버리며, 그 가족에게 크나큰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남기고, 이 사회에도 커다란 손실을 주기 때문에 죽음은 아쉽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다.

성경의 죽음

죽는다(die, 707), 죽음(death, 372), 이 외에도 죽음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 적어도 2000번 이상, 대단히 중요한 토픽, die(창2:17), death(계21:4, 8), 성경은 죽음의 경고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끝이 중요하다. 죽음 때문에 운명이 갈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의 중간 이야기

들어 보지 않아도 역시 같은 주제(역사, 시, 교훈, 대언, 복음서, 서신서)

모세의 유언(신30:19), 잠언, 교훈, 바른 길을 택하라.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다(잠14:12; 27) 예레미야 대언자(렘21:8), 예수님 지상 사역, 죽음 앞에서 우심(요11:33, 35), 부활이요 생명이야 (11:25-26)

왜 죽음이 오는가?

창2:17, 죽음은 죄 때문에 온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 영적으로 죽는 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함(사59:2), 죄와 불법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분리벽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죄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

그리고 결국 육신의 죽음,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창5:5). 죽음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 이 두 가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과제

1. 첫째 사망 즉 몸의 죽음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당한다. 예외가 없다.

2. 둘째 사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추방되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타는 불 호수에서 사는 것(계20:14)

3.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면 첫째 사망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말해 주는 유일한 체계: 죄가 문제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가르침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답도 당연히 기독교에만 있다.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더 정확히 하나님 안에 있다.

해결책: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롬3:23,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 영광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1:4)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인, 무슨 일을 해도 100%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고안한 것들이 종교와 철학: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려는 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 손상에 대한 완벽한 희생 예물, 속죄(atonement), 화해
구약성경이 계속해서 보여 주는 것: 대신 속죄 죄 없는 것이 대신 죽어 화해를 이루는 것
과거에는 죄 없는 짐승, 예표와 그림자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죄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신속죄를 이루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오늘 본문(히2:14-18) 설명

요약

- 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암에 걸린 우리만 죽는 게 아니다(고통도 마찬가지다)
- ②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첫째 사망
- ③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히9:27).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 ④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신축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계 21:1-7).
5.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다. 그 결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요3:16-18).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나는 여기에 닳을 내렸다.

바울과 같이 루터와 같이 웨슬리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1:17)를 믿는다.

따라서 우한 폐렴 등 공포가 지나가도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일이기에 인간으로서의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결코 죽음 앞에 떨지 않는다.

고전15:55-57

사람은 죽음 외에도 여러 문제: 국가의 병, 개인의 병, 죄의 병,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주시지 않겠는가?

특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 다른 병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지체들

히2:18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자. 히4:15-16

2020년도에 또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